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대외 리스크에 상승 탄력 제동, 전강후약 KOSPI

- 대외 리스크 동시 부각,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 전일 강세 재현한 KOSPI, 대외 불확실성에 약세 전환
- 대외 부담에 업종 약세, 원전은 대미 투자 기대에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026.09 월 월보] 자동차/2 차전자: 업사이드 리스크 vs 다운사이드 리스크

- 9월: 자동차 업사이드 리스크 경계, 2차전자 수주 모멘텀 + 리스크 체크
- 2차전자 업종 내 12개 기업 콤데이 및 미팅 진행. 내용 업데이트
- Top Picks: [자동차] HL만도, SNT모티브, [2차전자] LGES, 삼성SDI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3Q26 Preview] 티엘비: 3Q 실적 호조/소캠2 수혜, 숨은 강자~

- 3Q26 매출은 957억원(8.4% qoq), 영업이익은 147억원(15% qoqy) 추정
- 4Q26 매출은 1,091억원 추정, 처음으로 분기 기준의 1천억원 매출 예상
- 소캠2 매출 증가 및 설비투자 효과로 믹스 개선 확대

박강호. kangho.park @daishin.com

[3Q26 Preview] 심텍: 3Q 실적 상향, 소캠2 매출은 예상 상회

- 영업이익은 3Q26 837억원(573%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예상
- 2H26 영업이익은 1,700억원(122% hoh) 추정, 이익 확대 구간에 진입
- 소캠2 매출 확대, MSAP 및 비메모리 패키지 비중 증가, 최선호주 유지

박강호. kangho.park @daishin.com

대외 리스크에 상승 탄력 제동, 전강후약 KOSPI

- 대외 리스크 동시 부각,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 전일 강세 재현한 KOSPI, 대외 불확실성에 약세 전환
- 대외 부담에 업종 약세, 원전은 대미 투자 기대에 강세

대외 리스크 동시 부각,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 소식까지 더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장 마감 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와 공군기지를 대규모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

중동 리스크 확대되며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현재 각각 배럴당 94달러, 98달러를 상회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약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도 심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제트기 제조사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15~50%의 보복관세를 발효하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과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엔 환율이 153엔 수준까지 하락하며 7개월 만의 저점을 기록. 엔화 강세가 뚜렷해진 점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이어지는 부담 요인 여기에 금주 10일과 11일 예정된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도 잔존. 현재 9월 FOMC 금리인상 확률은 60.4%로 여전히 우세

전일 강세 재현한 KOSPI, 대외 불확실성에 약세 전환

코스피는 강세로 출발해 장 중 7,100선을 돌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

미국 증시 휴장으로 글로벌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 제한되고, 주요 매크로 이벤트도 부재하며 국내 증시에서는 상승 기조가 지속. 전일 국내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오픈시의 GPT6 아스트로 공개와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 관련 모멘텀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

다만 오후 들어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 전환. 상승폭을 반납하며 7,000선 하회

대외 부담에 업종 약세, 원전은 대미 투자 기대에 강세

대외 리스크 중첩되며 업종 전반 약세. 대미 투자 기대감으로 원전 업종 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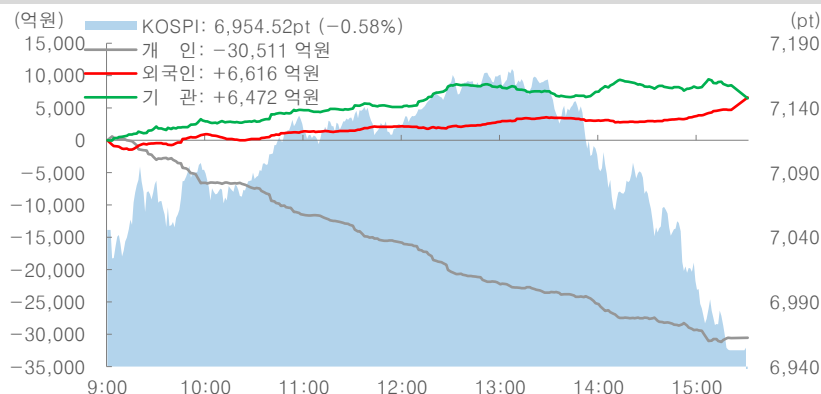
원전: 한전기술(+16.6%), 대우건설(+8.5%), 현대건설(+3.6%)

소비재: 롯데쇼핑(+4.9%), 현대백화점(+2.9%), 신세계(+2.0%)

반도체: 삼성전자(-0.2%), SK하이닉스(+0.6%), SK스퀘어(+0.6%)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4.6%), 효성중공업(-4.4%), LS ELECTRIC(-3.1%)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동차/ 2차전지



김귀연 gw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 의견

Overweight

비중 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HL만도	Buy	80,000원
SNT모티브	Buy	43,000원
LG에너지솔루션	Buy	550,000원
삼성SDI	Buy	690,000원

업사이드 리스크 vs 다운사이드 리스크

- 9월: 자동차 업사이드 리스크 경계. 2차전지 수주 모멘텀 + 리스크 체크
- 2차전지 업종 내 12개 기업 콤데이 및 미팅 진행. 내용 업데이트
- Top Picks: [자동차] HL만도, SNT모티브, [2차전지] LGES, 삼성SDI

2026.09월: 업사이드 리스크 vs 다운사이드 리스크

[자동차] 9월 추천주: HL만도, SNT모티브

실적 기대 제한적인 가운데, 1) 미국 로보틱스 투자 전략 가시화, 2) 실적 저점 확인에 따른 추가 반등 가능성에 주목.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해야 할 시점. 실적 변수 악재(물량 계절성/현대차 파업/환율하락/PT믹스 등) 소화 과정에서 밸류 모멘텀 발현 가능성에 주목. 현대차그룹 Physical AI 전략 가시화 늦어질 경우, 2026년 연말로 가며 1) 배당매력 높고, 2) 로봇 관련 가시적 성과 예상되는 종목 중심의 대응 추천

[2차전지] 9월 추천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8월에 이어, 북미 ESS 수주 모멘텀에 지속 주목. 2H26 LGES/삼성SDI의 북미 ESS 대규모 수주 예상. 8월 1) 삼성SDI 대비 LGES 언더퍼폼, 2) LGES 북미 ESS 수주 모멘텀 감안 시, LGES의 키밋추기 예상. 9월 2차전지 업종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1) 3Q 실적 시즌 돌입에 따른 단기 실적 노이즈, 2) ESS 물량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가능성 저시. 이슈 부각에 따라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나, 수주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

이달의 이슈

1. 삼성SDI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8/11일 GM과 미국 JV 합작 종료한 데 이어, 8/21일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5% 매각 공시. 매각 통해 현금 4.5조 마련. 북미 ESS/LFP 증설→수주→매출→손익개선 가시성 재차 확대

2. 미국-캐나다 관세 전쟁: 캐나다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종 수혜 기대감 있으나, 실질은 관세 불확실성 노출 지속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업종 부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3. 테슬라 사이버캠 출시: 사업 초기 규제/램프업 불확실성 있을 수 있으나, 확장 방향성은 명확. 램프업과 함께 1) NHTSA(도로교통안전국) 규제 대응, 2) Model Y 통한 FSD 검증 및 데이터 축적 가능하고, 3) FMVSS(연방자동차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

이달의 탐방노트 & 콤데이 후기(2차전지 12개사 미팅 진행)

2차전지 업종 내 12개 기업과 미팅 진행. 업체별 미팅 통해 다섯 가지 산업 포인트 재확인 1) EV 캐즘 지속되는 가운데 ESS 수요 사이클 수혜 본격화, 2) AI DC 증설에 따른 ESS 대형배터리 + BBU/동박/알박/MLCC/장비 수요 연쇄 작용, 3) 탈중국 강화 기조 및 증설 제한으로 일부 소재별 공급 타이트, 4) 2027년 판가인상/가동률개선/원가절감 통한 실적 개선 본격화, 5) 단기 ESS/AI/탈중국 공급망 수혜 → 중장기 전고체/나트륨배터리 사업 확장 노력

**12개사: LGES/대주전자재료/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이노메트리/피엔티/레이크머티리얼즈/성일하이텍/에코앤드림/채비/필에너지/삼아알미늄/SKC*

티엘비 (3568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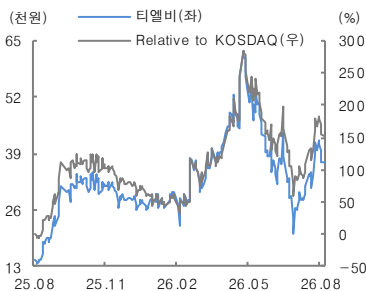
37,150

(26.09.08)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DAQ	811.88
시가총액	88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5%
자본금(보통주)	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2,888원 / 14,423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6억원
외국인지분율	5.11%
주요주주	백성현 외 8 인 28.05%

주식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2.2	-20.6	28.6	157.6
상대수익률	30.1	-10.8	82.9	159.7



3Q실적 호조/소캠2 수혜, 숨은 강자~

- 3Q26 매출은 957억원(8.4% qoq), 영업이익은 147억원(15% qoq) 추정
- 4Q26 매출은 1,091억원 추정, 처음으로 분기 기준의 1천억원 매출 예상
- 소캠2 매출 증가 및 설비투자 효과로 믹스 개선 확대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60,000원 하향

2026년 3Q 매출(957억원)과 영업이익(147억원)은 각각 8.4%(qoq/38.9% yoy), 14.9%(qoq/69.6% yoy) 증가 등 2Q26에 이어서 실적 호조가 확대 예상. 분기 기준의 매출은 4Q26에 1천억원(1,091억원 추정)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 전분기대비 증가는 3Q24 이후로 9개 분기 연속 증가가 예상. 서버항 메모리 증가 동시에 소캠2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관련 메모리 모듈의 시장 확대가 진행, 티엘비가 수혜를 받음. 또한 3Q26 기점으로 베트남에서 내층 설비투자 확대가 매출 증가, 4Q26에 안산에서 생산 확대도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

유상/무상증자의 완료 및 주식 상장으로 수급 부담이 존재하였으나 최근에 해소된 것으로 판단. 현 시점에서 2026년 및 2027년 서버항 반도체의 성장 및 소캠2 시장 확대에 초점, 티엘비가 수혜 예상.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60,000원(2027년 EPS X 목표 P/E 24.4배(실적 호조 상단))으로 하향(유상/무상증자로 발행 주식수 증가, 주가의 희석화를 반영).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 투자포인트는

2026년 영업이익은 547억원으로 111%(yoy) 증가 추정

① 2026년 매출(3,688억원)과 영업이익(547억원)은 각각 42.7%(yoy), 110.7%(yoy) 증가 등 큰 폭의 성장을 예상. 2027년 매출(4,750억원)과 영업이익(748억원)은 각각 28.8%(yoy), 36.6%(yoy)씩 고성장이 지속 전망. 소캠2 관련 매출은 2026년 195억원, 2027년 1,550억원으로 694.9%(yoy) 증가 추정, 수익성 호조의 토대를 마련

베트남 및 한국 안산 공장의 내층, 생산능력에 투자 결과가 4Q26에 본격화되면서 2027년 분기 기준의 평균 매출은 1천억원을 상회한 구간에 진입. 소캠2 모듈은 일반적으로 고다층(12층~16층) 구조, 기존의 서버항 메모리모듈 대비 4층~8층 전후가 높기 때문에 평균공급단가 상승, 선제적인 투자 효과는 2026년/2027년 실적 개선으로 연결

② 3Q26에 매출 확대는 서버항 고부가 제품인 메모리모듈(RDIMM 6400/7200) 매출의 증가, 고다층으로 전환되면서 평균공급단가 상향이 핵심. 메모리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서버항 DDR5 모듈의 생산 확대에 집중, 또한 처리할 데이터 증가로 고집적, 고신뢰성을 요구한 RDIMM 6400/7200 비중이 증가 추세가 확대된 구간에 있음

(단위: 십억원 %)

구분	3Q25	2026	작년추정	당사추정	3Q26(F)			4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69	88	84	96	38.9	8.4	100	109	50.3	14.0
영업이익	9	13	9	15	69.6	14.9	16	17	92.8	12.7
순이익	7	11	7	12	77.3	7.4	14	13	84.1	12.6

자료: 티엘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심텍 (22280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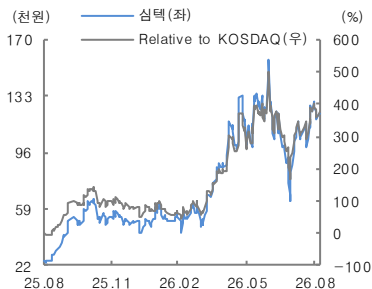
121,800

(26.09.08)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DAQ	811.88
시가총액	4,6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80%
자본금(보통주)	1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7,300원 / 24,8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06억원
외국인지분율	11.64%
주요주주	심텍홀딩스 외 5 인 31.77% 삼성자산운용 6.8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7	21.8	113.7	390.1
상대수익률	8.9	36.7	203.9	394.2



3Q 실적 상향, 소캠2 매출은 예상 상회

- 영업이익은 3Q26 837억원(573%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예상
- 2H26 영업이익은 1,700억원(122% hoh) 추정, 이익 확대 구간에 진입
- 소캠2 매출 확대, MSAP 및 비메모리 패키지 비중 증가, 최선희주 유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0원 유지

2026년 3Q 영업이익은 837억원으로 33.1%(qoq/576% yoy) 증가, 종전 추정 (767억원)/컨센서스(830억원)를 상회 예상. 매출은 5,535억원으로 7.6% (qoq/48.5% yoy) 증가 추정. 3Q26 실적 기준으로 반도체 기판 업체 중, 최대 규모 동시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 높은 기업으로 판단. 3Q26 실적 호조는 2Q26 기점으로 소캠 2 관련한 매출(모듈 및 반도체 기판)이 경쟁사대비 높은 동시에 믹스 효과(고부가 영역인 MSAP 매출 비중 증가)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5.1%로 2.9%p(qoq) 개선 추정

3Q26에 수익성 호조가 빠르게 진행. 2026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1,700억원으로 상반기대비 122% 증가 추정. 소캠 2 매출 확대에 수혜로 판단,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0원(2027년 EPS X 목표 P/E 24.6배(실적 호조 상단)을 유지. 반도체 기판 중 최선희주 유지. 투자 포인트는

소캠2 매출 및 MSAP 비중 확대로 2H26 영업이익은 122%(hoh) 증가 추정

① 엔비디아가 소캠2의 본격적인 출하 과정에서 심텍이 메모리 3사에 공급. 동시에 메모리 모듈 및 반도체 기판을 동시에 공급한 업체로 차별성(경쟁력 우위)이 부각,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 소캠2 매출(모듈만)은 2026년 1,518억원에서 2027년 3,210억원으로 증가(111.5% yoy) 예상, 상대적으로 다른 메모리 모듈 및 MCP대비 수익성이 우위에 있어 개선의 토대를 제공. 심텍은 소캠2 관련된 모듈 업체 중 최대의 점유율(메모리 3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차지 및 관련된 반도체 기판인 LPDDR5도 동시에 공급 중.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을 시작으로 서버용 메모리모듈인 소캠2 적용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서버용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 베라 루빈 이후에 차세대 반도체 기판에서 엔비디아 위상이 상향되면서 심텍의 수혜가 확대 예상

② 3Q26에 MSAP 비중의 상향으로 전사적인 믹스 효과가 확대. 텐팅 공법의 반도체 기판보다 MSAP 적용된 제품 비중 및 가동률 증가는 영업이익률 개선, 믹스 효과로 연결. MSAP 비중은 2026년 3Q에 82%로 추정, 지난 1Q26대비 2%p 높아질 전망.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 차원에서 최근 2,742억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 신규 가동은 2028년 1Q로 추정, 소캠2 모듈 및 반도체 기판, 그리고 MSAP 관련한 생산 능력 확대로 추가적인 성장 요인을 확보 추구

(단위: 십억원 %)

구분	3Q25	2Q26	3Q26(F)					4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73	515	545	554	48.5	7.6	555	569	44.8	2.9
영업이익	12	63	77	84	575.8	33.1	83	86	740.5	3.0
순이익	7	45	61	66	880.3	48.1	57	68	흑전	2.0

자료: 심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